

배우 안보현 “골때리는 재벌형사 밍지 않았죠?”

‘재벌X형사’ SBS TV 금토극 장르물로 탄탄한 시청층 확보
전대미문 재벌 3세 형사 ‘진이수’의 수사기…시즌2 논의 중

배우 안보현(35)은 ‘재벌X형사’로 타이틀을 무게감을 이겨냈다. SBS TV 금토극이 장르물로 탄탄한 시청층을 확보, “부흥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컸다”고 돌아왔다. ‘재벌3세가 강력형사’가 된다는 설정 자체는 판타지 요소가 강했지만, ‘사이드’ 전개로 시청자를 끌어당겼다. 초반에는 KBS 2TV 대하사극 ‘고려거란전쟁’ 등과 경쟁하며 화제성이 높지는 않았으나, 중반부터 입소문이 났다. 마지막 16회는 9.3%에 그쳤으나, 8회 자체 최고 기록인 11.0%(닐스코리아 전국기준)를 찍었다. 이미 시즌2도 논의 중인데, SBS 시즌제 드라마를 이어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뿌듯함 이전에 불안감이 컸죠. 나보다 SBS 금토극 기대치가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시청률) 두 자리 수가 항상 넘어서 압박감이 없지 않았고요. 마치 내가 책임감을 다 짊어지는 것 같아서 잘못 하면 내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스코어 상으로 채널에서 원하는 지점에 도달해 뿌듯함보다 한시를 놓았죠. 사실 저한테 정말 높은 자리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 시간에 TV를 많이 보는 편인데, 내가 거기에 나오니까. 편성 됐을 때부터 설렘 반, 부담 반이었어요.”

이 드라마는 돈에는 돈, 뺨에는 뺨으로 맞서는 전대미문 재벌 3세 형사 ‘진이수’(안보현)의 수사기다. 안보현은 김바다 작가와 ‘마이네임’(2021)에 이어 호흡을 맞췄다. 일부러 원작인 러시아 드라마 ‘실버 스푼’(2015)은 보지 않았으며 “극본을 봤을 때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는 캐릭터였다”고 짚었다. “정말 골 때리고, 밍지한 행동을 많이 하지 않느냐”면서도 “처음에 굉장히 연민있는 캐릭터라고 생각했다. 겉으로는 양스러운 모습을 보이지만, 내면적으로 따뜻하고 인간미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고 털어놨다.

‘군검사 도베르만’(2022)에서 군인이자 검사를 연기했지만, 이번엔 재벌이자 형사인 역할을 맡아 “모티브를 찾기 어려웠다”고 회상했다. “이수는 자신의 직업을 쓰면서 노는데 진심이었다. 형사라는 직업을 쫓기듯 여쩔 수 없이 택했지만, 재미를 느끼는 과정이 신기했다. 판타지적인 요소가 가미 됐지만, 많은 분들이 ‘실제로 재벌이 형사면 대박이겠다’고 하더라. 재벌X형사를 그림책이라 생각

하고, 재미있게 보여주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영화에서 마치 부자의 정적이 있는 것처럼 각인 돼 있는데, 난 방향성을 조금 다르게 가고 싶었다”며 “내 체형이 좀 특이해서 옷도 거의 맞춤 제작이다. 여태껏 TV에서 봤던 재벌 부자 캐릭터와 다른 색깔을 띄기 위해 많이 노력했다. 사람들이 볼 때 ‘밍지’이라고 느끼게끔 머리를 올리고, 두 가닥만 앞머리를 냈다. 여름에 하와이에서만 입을 것 같은 날티나는 옷을 입었다”고 덧붙였다.

이수의 앞머리를 두 가닥만 내고 올백한 머리는 트레이드 마크가 됐다. 일명 ‘탕후루 머리’로 불렸는데, “많은 모낭을 잃었다”며 웃었다. “두 번 다시는 이 머리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한 5회차 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도 “사실 내가 고집했다. 스타일링을 네 다섯 번 바꾸면서 ‘굉장히 재수없다. 이 머리로 가야겠다’고 했다. 앞머리를 두 가닥 내고 스프레이로 고정 시켰는데, 눈썹이 땀뻘처럼 비더러. 머리로 린스를 세 번 정도 해야 잘랑거렸다. 그래도 이 머리 아니었으면 많은 분들한테 각인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만족했다.

초반엔 능청스러운 연기를 하며 갈피를 잡지 못했다. “재수없는 행동을 밍지 않게끔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지점에서 혼돈이 왔다”며 “원작을 따라하지 않고 내가 하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했다. ‘진이수’는 내가 처음 하는 거니까 맞을거야라고 계속 고집했다. 괜히 찍다라 질고, 주머니에 손이 들어가더라. 현장에서 더 웃기려고 한 적도 많은데, ‘뺨뺨 티뜨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겼다. 그래서 이수스러운 행동을 많이 했다”고 강조했다.

재벌 연기를 하며 대리 만족하지는 않았을까. “첫 번째로 집 규모를 보고 너무 놀랐다”며 “헬기, 보트를 탄다고 해서 자격증도 따다. 재력적인 부분에서 오는 카타르시스도 있지만, 미술관 전시회를 열어주고 장례식장도 대신 해주는 게 좋았다”고 귀띔했다.

“이수가 장례식장 열어주는 걸 보면서 ‘아, 난 돈이 많으면 뭘 하고 싶었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부산에서 어릴 때 IMF가 터져서 걸어서 등·하교를 했어요. 항상 다대포시장을 오갔는데, ‘누가 살까?’ 싶은 나물을 내놓고 파는 이모 할머니들이 많았어요. 그런 걸



다 사서 되곤 시켜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시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사서 “빨리 다 되곤”이라고 외치고 싶어요. 그런 모습이 이수한테도 좀 물어 난 것 같아요. 다른 플렉스지만 어릴 때 (이런 걸)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모텔 출신인 안보현은 10여 년 만에 뒤늦게 빛을 봤다. ‘이태원 클라쓰’(2020)가 시발점이 됐고 ‘유미의 세포들’ 시즌 1·2(2021~2022) ‘마이 네임’(2021) ‘군검사 도베르만’(2022) 등으로 입지를 넓혔다. 단역부터 주연까지 올라왔는데, “넌 가지고 태어난 건 키밖에 없으니 항상 노력해야 된다”며 계속 재직했다”고 회상했다. “인생 그래프에서 크게 내려간 것 없이 조금씩 계속 올라가서 감사하다”며 “부모님께 ‘조금씩 성장하고 있으니 지켜봐달라’고 했는데, (원동력

은) 그게 제일 크다. 올라가는 게 재미하지만 계속 무언의 응원을 해줬고, 나도 그걸 느끼면서 ‘포기하면 안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데뷔작인 영화 ‘하야’(2016) 촬영감독님이 재벌X형사 촬영감독님이예요. 당시 생계적으로 힘들어서 알바를 병행하면서 촬영했거든요. 감독님이 울지로, 종로3가 등 스태프 모이는 자리에 데리고 갔죠. 슬픈 추억이 많았는데, 극본 리딩 현장에서 만나자마자 우리 둘만 아는 그 눈물이 생각났어요. 감독님이 ‘너 성장하는 거 보고 와이프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라면서 힘을 실어주고 조언도 많이 해주었어요. 저도 자연스레 스태프 한 명 한 명 이름 외우고, 현장 케미 덕에 드라마가 잘 나왔죠. 중간에 MT 갔을 때 ‘시즌2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뤄져서 행복해요.”



이범수, ‘파경’ ‘이중생활’ “사실과 다른 부분 많아”

배우 이범수(55)가 자신과 결혼 14년 만에 걸리신 영어 칼럼니스트 겸 국제회의 통역가인 이윤진(41)이 자신에 대해 폭로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이범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이윤진 씨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올린 글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범수 씨가 법정에서 심심껏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윤진 씨가 소셜 미디어에 게시하는 글이 기사화되는 것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이윤진 씨가 먼저 제기한 소송 안에서 직접 주장과 반박을 통해 답변해 나갈 예정”이라는 얘기다.

이범수가 현재 이윤진으로부터 이혼 조정 신청을 받아 진행 중에 있다는 건 확인했다. 다만 와이원엔터는 “이러한 내용은 배우의 사생활의 부분이고 소속사는 그 부분을 존중하기 위해 개입하거나 내용을 세세하게 파악하고 묻지 않고 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모든 문의 내용에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 사생활로 소속사와 대중들께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라는 이범수 씨의 말을 전해 드린다”면서 “소속사로서도 오랜 시간 이범수 씨와 가족들을 지켜봐 주시고 아껴주신 분들께 감사스러운 소식을 전하게 돼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윤진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이범수가 딸이 중학교 진학을 해외로 선택했다는 이유로 서울집에 출입을 못 하게 했고, 돈줄도 끊은 채 집안 문을 굳건히 닫고 ‘불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폭언을 했다고도 썼다.

특히 이범수를 겨냥한 듯한 비난도 덧붙였다. 이윤진은 “기괴한 모습의 이중생활, 은밀한 취미생활, 자물쇠까지 채우면서 그토록 소중히 보관하고 있던 것들, 양말 속 숨겨 사용하던 휴대폰까지 이런 진실을 다한 가족에 대한 기간이고 배신이다. 더 알고 싶지도 않다”고 토로했다.

이범수는 2010년 이윤진과 재혼했다. 이윤진은 초혼이었다. 슬하에 1남1녀를 뒀다. 이들 가족은 2016~2017년 KBS 2TV 예능물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해 일상을 공개했다. 이윤진은 이범수를 상대로 지난해 말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르 매력+대중성 다 잡은 ‘파묘’ 1000만 향해 달렸다

할리우드 대작 ‘툰:파트2’ 맞붙어 흥행 우려
개봉 초기 강력한 입소문 타며 극장 장악해
오컬트 매력 살리고 대중성도 잡은 균형감
최민식·유해진·김고은·이도현 호흡도 빛나
후반부 항일(抗日) 코드 관객 전폭 지지해

영화 ‘파묘’가 1000만 관객 고지를 밟았다. 공개 32일만이다. 역대 32번째 1000만 영화이자 한국영화로는 23번째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범죄도시2’(1269만명) ‘아바타: 물의 길’(1080만명) ‘범죄도시3’(1068만명) ‘서울의 봄’(1185만명)에 이어 5번째다.

당초 ‘파묘’는 할리우드 스타 티모시 샬라메가 주연한 블록버스터 ‘툰:파트2’와 일주일 간격으로 맞붙게 되면서 고전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툰:파트2’에 앞서 앞서 공개된 ‘파묘’는 강력한 입소문을 타며 경쟁작을 압도. 박스 오피스 정복에 성공했다. ‘파묘’가 1000만명을 넘길 수 있었던 이유는 오컬트 장르만의 매력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중성을 갖췄다는 점이 가장 먼저 꼽힌다. 최민식·김고은·유해진·이도현 주연 배우 4인방이 영화 내외에서 완벽에 가까운 호흡을 보여줬다는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거로 분석된다. 후반부 전개에 호불호가 갈리긴 했어도 항일(抗日) 코드가 결국 먹혀들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오컬트 매력+대중성…두 마리 토끼 잡아

업계는 ‘파묘’의 성공을 균형에서 찾는다. 장르적 재미와 대중성을 동시에 잡아냈다는 예기다. 오컬트는 국내 관객에게 익숙하지 않은 장르다. 흥행에 성공한 작품도 나훈민 감독의 ‘곡성’(687만명), 장 감독 데뷔작 ‘검은 사제들’(544만명) 정도로 손에 꼽는다. 특색 강한 장르물은 자주 만들어지지 않고 나오더라도 특정 관객층만 반응한다는 약점이 있다. 그런데 ‘파묘’는 이 장르만의 매력을 놓치지 않으면서 동시에 연령·성별 무관하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보편성까지 확보하며 1000만에 성공했다. 오컬트라는 말 자체는 낯설어도 풍수지리·무당·굿 등 소재의 친숙함이 진입 장벽을 낮췄다는 분석이다. 연기력이 빼어나고 관객 눈에 익은 배우들이 다수 나온다는 점도 대중성을 한층 높여줬다고 본다.

국내 제작사 관계자는 “국내 작품으로 한정하면 TV나 OTT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장르인데 누구나 부담스럽지 않게 즐길 수 있는 작품이라는 게 1000만 관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국내 배급사 관계자는 “이번 작품까지 장편영화 3편을 만드는 동안 오컬트물에만 집중해온 장 감독이 두 마

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적정선을 잡아내기 위해 애쓴 게 보이는 작품”이라며 “그 전라이 완벽하게 먹혀든 것 같다”고 했다.

◇모범저스 완벽한 티키타카

각 세대를 대표하는 배우들이 각각 빼어난 연기를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최상의 호흡을 보여줬다는 점도 ‘파묘’가 1000만 영화로 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시각도 있다. 60대 최민식, 50대 유해진, 30대 김고은, 20대 이도현은 모두 단독 주연을 맡을 수 있는 역량을 가졌다. 흥행에 성공한 작품도 나훈민 감독이들은 ‘파묘’에서 연기력을 드러내려고 하기보다는 각자 맡은 캐릭터를 충실히 수행하는 데 집중했다는 것이다. 어떤 캐릭터도 튀지 않아 극이 안정적으로 전개됐고, 관객 역시 불편함 없이 따라갈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배우들은 “이렇게 호흡이 잘 맞는 경우는 흔치 않다”는 말을 언론 인터뷰에서 수차례 했다. 최민식은 “이 작품에 딱 맞는 특별한 장이 되고 싶었다”는 말로 ‘파묘’에서 자신의 연기를 설명하기도 했다.

입대한 이도현을 제외한 최민식·유해진·김고은이 주축이 된 무대인사 행사에서도 이들의 호흡은 주목 받았다. 특히 최민식이 팬들과 스텝 없이 소통하며 유해진·김고은 등과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지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영화 홍보사 관계자는 “최근엔 영화가 좋아야 하는 건 기본이고 온라인상에서 얼마나 이목을 끌 수 있느냐도 흥행에 큰 영향을 주는데, ‘파묘’ 감독·배우



들의 자연스러운 티키타카가 관객을 끌어당긴 힘이 됐다”고 말했다.

◇진부한 항일 코드? 그래도 관객은 전폭 지지

극 후반부 드러나는 항일 스토리가 주효했다고 보기도 한다. ‘파묘’가 개봉하기 전 시사회에서 공개됐을 때, 가장 우려됐던 부분이 바로 후반부였다. 극에 급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나면서 전반부 활력이 떨어진다라는 평가가 많았고, 항일 코드 자체가 구태의연하다는 반응도 있었다. 그러나 관객은 1000만으로 ‘파묘’의 이 선택을 전폭 지지했다. 멀티플렉스 업체 관계자는 “잘 만들어지지만 한다면 반일 혹은 항일 코드는 세대와 시대를 불문하고 통하는 이야기 아니겠느냐”고 했다.

실제 관람객들은 후반부 전개에 호불호가 갈릴진 몰라도 충분히 볼 만한 영화라고 대체로 평가했다.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면서 정기를 끊어 내기 위해 말뚝을 박았다는 이야기가 10대 후반 30대 초반 관객에게 신선하게 다가갔다는 분석도 있다. 이 스토리를 잘 알고 있는 30대 후반 이상 관객에게 새삼스러울 수 있어도 젊은 세대에겐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내 제작사 관계자는 “새로운 소재로 항일을 이야기했고, 오버스럽지 않게 풀어낸 게 관객 마음을 움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싱어송라이터 송소희 내달 첫 미니음반 발매

경기민요 소리꾼인 싱어송라이터 송소희가 첫 번째 미니 음반을 발매한다.

22일 소속사 매직 스토리베리 사운드에 따르면, 송소희는 오는 4월 4일 오후 6시 음원 플랫폼에 첫 미니 앨범 ‘공중무용’을 공개한다. 작년 10월 공개한 싱글 ‘세상은 요지경(Asurajang)’ 이후 약 반년 만의 신곡이다. 송소희는 이번 앨범을 통해 자신의 내면에서 느낀 새로운 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다.

송소희는 특정 장르에 구애받지 않는 아티스트로서 성장을 예고하고 나섰다. 무책임을 향한 날카로운 메시지를 담은 록 장르의 ‘인포데믹스(Infodemics)’(with 이일우 from 잠비나)가 대표적이다. ‘세상은 요지경’은 혼란스러운 현실을 빗대어 표현한 디스코 장르다.